

NO.48

박물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식지
2025 가을·겨울호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Culture
Autumn / Winter 2025

전시 리뷰

이화 창립 139주년·박물관 개관 90주년 기념 특별전
《 옷츠, 시간을 입다 》

외부 지원 사업 소식

2025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정리 및 활용 사업
2025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전시 연계 프로그램

문화행사 및 전시연계 체험교육 소식

호랑이 '이호'와 함께한 갓 쓰고 즐기는 포토타임
전시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

기증소식 I

김옥영·김수옥

기증소식 II

전현선·김경인·이윤주·양지숙·최연택

이화 창립 139주년 · 박물관 개관 90주년 기념 특별전 《옷츠, 시간을 입다》 전시리뷰

이승해

전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화 창립 139주년 · 박물관 개관 90주년 기념을 맞아 개막한 《옷츠, 시간을 입다》 특별전은 ‘조선 전기 출토복식부터 근현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우리 옷을 다채롭게 선보인다’는 신문 기사에 나올 법한 뻘한 내용 말고, 이화 창립 139주년 기념 특별전이며서 가정과학대학 수집품과 기증품을 중심으로 꾸며졌다는 것이 가정과학대학의 졸업생 입장에서 반가우면서도 설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다.

전시실은 옷의 소재와 착용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착용자와 시대, 계절, 용도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공간은 우리가 박물관에서 전통 복식 전시를 한다고 하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오래되고, 예쁘고, 화려하고, 솜씨 좋은 ‘비단 옷’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요즘 거리에 나서는 모두 무채색의 차림새가 대부분인데, 남자 옷, 여자 옷, 어린이 옷 모두 우아하면서도 다채로운 색감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더욱 눈길을 끌었던 것은 중앙에 자리 잡은 직물조직 견본과 설명이었다. 멋진 유품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옷들이 어떤 옷감으로 만든 것인지, 어떻게 저렇게 우아한 광택이 나는지 궁금해하셨을 분들에게 매우 친절한 설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어서 귀여운 어린이 쓰개와 복식을 모아놓은 공간이 있었고, 모시와 삼베같이 속옷과 여름 옷으로 주로 사용된 소재를 모아놓은 공간도 있었는데, 소재의 특성을 살려 전시물 뒷면에서 조명을 사용한 점과 역시 소재에 대한 설명 코너가 추가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이후 염색과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함께 변화한 한복들도 시간여행을 하듯 자개장과 같은 소품과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품은 ‘이화 창립 70주년 기념 한복’을 당시 사진과 함께 전시한 코너였다. 전시실 외부, 복도 공간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번 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전시품이 아니었나 싶다. 오랜 역사를 통해 계승, 발전한 전통 복식이 ‘이화’와 만나 시대와 여성 교육, 전통이 모여 완성된 하나의 아이템. 각자 자유롭게 응용하여 제작하고, 또 사진처럼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큰 울림이 있었다.

오랜만에 방문한 학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멋진 전통 복식을 관람하고, 학교의 전통과 졸업생으로서의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다음 전시를 기다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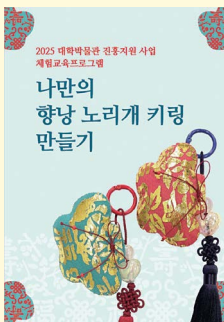
국가유산청 주최, (사)한국대학박물관 주관 「2025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정리 및 활용 사업」 경주 황오동 33호분 보고서 발간



박물관은 2025년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정리 및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1965년 발굴조사했던 '경주 황오동 33호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는 적석목곽묘 2기의 조사내용과 동곽과 서곽이 연결된 연접분에서 출토된 유물이 수록되어 있다. 백화수피제관모편, 금제세환·태환이식, 유리제옥부경식, 은제대금구, 패각편 환두대도, 행엽, 운주, 고배, 대부장경호, 영락대부잔 등 출토유물 319건은 향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삼국시대 고분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025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전시 연계 프로그램

박물관은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의 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성인 대상 문화예술 강좌 <박물관에서 만나는 복식 이야기>는 '한복의 색과 천연 염색', '한복의 소재 변화', '전통 모시·삼베 직조'라는 주제로 6월부터 8월까지 총 3회 진행되었으며, 150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0월 29일 진행된 <나만의 향낭 노리개 키링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은 총 2회 운영하여 50명이 참여하였다. 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전시 해설과 함께 향낭 노리개 유물을 살펴본 뒤, 이를 모티브로 한 향낭 노리개 키링을 만들어보며 전통 노리개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만의 향낭 노리개 키링 만들기



박물관에서 만나는 복식 이야기



2025 박물관 문화행사 < 호랑이 ‘이호’와 함께 갓 쓰고 즐기는 포토타임 >

박물관은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이화를 지키는 박물관 돌호랑이 ‘이호’와 함께 갓 쓰고 즐기는 특별한 포토타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화유치원 어린이와 본교 재학생, 외국인 관광객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해, 박물관에서 준비한 갓을 착용하고 돌호랑이 ‘이호’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신상품 자개 키링 등 박물관 굿즈와 도록을 할인하는 아트숍 세일이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여자들에게 박물관에서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

< 조선시대 기록화 체험 :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 >, < 나만의 금박 에코백 만들기 >, < 나만의 귀주머니 키링 만들기 >

박물관은 상설전시 《소장품》을 비롯해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 《금상첨화^{錦上添花}, 금박^{金箔}》과 특별전 《옷^옷, 시간을 입다》와 연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맞추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다.

7월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는 《소장품》 전시와 연계한 <조선시대 기록화 체험: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된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조선시대 기록화<기사계첩^{善社契帖}, 보물 제638호>를 비롯한 다양한 조선시대 소장품을 살펴보는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9월에는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 《금상첨화, 금박》과 연계하여 <나만의 금박 에코백 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된 본 프로그램은 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전시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조선시대 전통 금박 기법부터 현대적으로 확장된 금박 표현까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다양한 문양을 조합해 나만의 금박 에코백 만들기를 체험을 하며, 조선 후기 공예 기법인 금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11월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는 특별전 《옷^옷, 시간을 입다》와 연계한 <나만의 귀주머니 키링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예연구원의 전시 해설과 함께 전시 출품 유물인 귀주머니를 감상한 뒤, 이를 모티브로 한 귀주머니 키링을 만들어보며 복식 유물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선시대 기록화 체험: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



나만의 금박 에코백 만들기



나만의 귀주머니 키링 만들기

기증소식 I

본교 제8대 총장 김옥길 선생(1921~1990)의 동생이자 연세대학교 부총장과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동길 박사(1928~2022)의 유품이 본교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이번 기증은 박사님의 여동생인 김옥영(본교 음악과 59 졸업)·김수옥(본교 생활미술과 82년 졸업) 동문이 자택 유물을 정리하고 박물관에 전달하며 이루어졌다. 기증품은 자택에서 사용하던 생활사 유물 242건 284점과 근현대 미술 작품 42건 4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사 유물 중에는 김동길 박사의 상징물인 보타이와 지팡이, 미국에서 논문을 집필할 때 사용한 타자기와 해외 출국시 사용한 가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김옥길 선생의 정취가 느껴지는 핸드백과 서예 도구인 벼루, 붓 등도 함께 인수되어 두 분의 일상을 엿보게 한다.



가방

보타이

지팡이

핸드백

자택에 소장되어 있던 근현대 회화들은 두 분이 작가들의 후원자이자 예술적 동반자로서 맺어온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나 스웨덴으로 이주한 뒤 동양적 감성과 북유럽 풍경을 두루 캔버스에 담아낸 한봉덕(1924~1997)의 작품 5점과, 한복 입은 인물화 등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김세용(1922~1992)의 작품 9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추사체와 한글 초서 연구에 매진했던 난곡 김응섭(1917~1989)의 작품 10여 점이 눈에 띈다. 김동길 박사가 난곡의 개인전 도록 서문을 쓸 정도로 친밀했던 인연이 <목란 6폭 병풍>과 <난곡 기명절지 10폭 병풍> 등의 기증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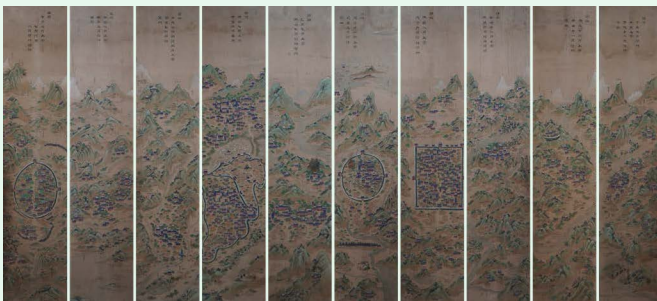
이 외에도 조선 19세기 중후반의 회화식 지도인 <실경성읍도>를 비롯하여 소치 허련의 <목모란도>, 오당 안동숙의 <송학>, 나카바야시 치쿠케이(中林竹溪)의 <산수> 등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기증하였다. 이번 기증은 본교의 소장품을 풍성하게 함은 물론, 한국 근현대 지성사를 상징하는 두 분의 정신을 보존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봉덕 작품
51.5×34.5cm

김세용 작품
43×31cm

난곡 김응섭, <목란6폭병풍>
각 폭 66×33cm



작자 미상, <실경성읍도>
19세기 중후반, 각 폭 157×35.5cm

기증소식 II



전덕혜 작 <무녀도>

1979, 217.5 × 134.5cm

전현선(본교 동양학과 86년 졸업) 동문은 전덕혜 作 <무녀도>와 <모란도 2폭> 등 회화 작품 2점과 벼루 1점, 작가의 채색 붓 19점과 화집 5권을 함께 기증하였다. 본교 조형대 동양학과 전덕혜 명예교수는 현초 이유태 선생의 제자로, 1957년 <대한민국전람회>에서 <가을>로 입선한 바 있다. 기증작 <무녀도>는 1979년 '한진수·전덕혜 2인전'을 통해 공개된 작품으로, 작가 타계 이후 조카인 전현선 동문이 소장해 오다 연구와 전시를 위해 기증하였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 복식의 변천사를 조망한 2025년 특별전 이후, 이화 동문들의 복식 유물 기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생활사 유물을 기증했던 김경인 동문(본교 생물학과 58년 졸업)의 자녀 홍완식·홍상희·홍재희는 2025년에도 모친의 혼수품 한복 23건 24점을 추가로 기증하였다. 1960년대 한복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이 기증품들은 특별전 《옷츠, 시간을 입다》를 통해 관람객에게 그 시절의 정취를 전해주었다.

이윤주 동문(본교 자수와 72년 졸업)은 털배자와 자수 베개 등 5건 5점을 기증하였다. 조모가 착용했던 털배자는 조부가 사장으로 재직했던 흥한방직(1953~1972)에서 직조한 양단천으로 1960년대에 제작되었다고 전했다.

양지숙 동문(본교 영문과 83년 졸업)은 의걸이 장과 손틀 재봉틀 등 2건 3점을 기증하였다. 전편의 문을 투각하고 한지로 마감한 의걸이 장은 교육 사업에 매진하셨던 기증자의 외증조부가 사용하던 것으로, 모친께서 혼인 당시 물려받아 소중히 보관해 오다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김경인 기증 저고리



이윤주 기증 털배자



양지숙 기증 의걸이장



행남자기 카탈로그, 1981

행남자기 디자인실에서 근무했던 최연택 선생님은 행남자기 관련 자료 33권을 본교 박물관에 기증했다. 주요 기증 자료로는 「세계인의 식기, 행남자기 카탈로그」(1981), 「스노우 본 차이나 컬렉션 카탈로그」(1992), 『행남오십년사』(1992) 등이 있다. 이번 기증으로 현대 산업도자기 분야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